

# 2022 프리츠커상 수상자 ‘프란시스 케레’ 척박한 땅에 지어진 환경친화적 건축물

2022 Pritzker Prize Winner, Francis Kéré  
Eco-friendly building built on barren land



디에베도 프란시스 케레  
사진=프리츠커상 홈페이지, 이하 동일

2022년 프리츠커 상(pritzke prize) 수상자로 1965년 생의 부르키나파소 출신 건축사 디에베도 프란시스 케레 (Diébédo Francis Kéré, 57세)가 선정됐다. 아프리카 출신 건축사가 프리츠커상을 받은 것은 1979년 프리츠커상이 제정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상을 제정한 미국 하얏트 재단은 3월 15일 밤(한국시간) 프리츠커상 홈페이지를 통해 프란시스 케레를 2022년 프

리츠커상 수상자로 공식 발표했다. 재단은 케레가 자원이 극도로 부족한 환경에서도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을 만든 공로를 높이 사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프리츠커상 심사위원단은 “케레는 주변 환경·입주민과 하나가 되는 건물을 만들었다”라면서 “그의 건물은 가식이 없으면서도 우아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아프리카의 나라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에서도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로 꼽힌다. 문맹률이 75%며 아이들의 절반 정도만 학교에 다닌다. 케레가 태어난 간도(Gando) 마을은 사정이 더 심각했다. 수도 와가두구에서 남동쪽으로 2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간도 마을은 인구는 3,000명 정도로 수도나 전기 시설이 갖춰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주민이 진흙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다.



부르키나파소의 간도초등학교

© Erik-Jan Owerkerk



부르키나파소의 학교 Lycée Schorge

© Francis Kéré



외과 클리닉·건강센터



© Francis Kéré





미국 몬태나주 티벳 라이즈 아트 센터의 심터 Xylem

케레는 마을 촌장의 장남으로 태어난 간도 마을 최초로 학교에 다녔는데, 간도에는 학교가 없어서 일곱 살 때 가족을 떠나 덴코도고(Tenkodogo)에서 학교를 다닌다. 덴코도고의 학교의 사정도 역시 열악해, 시멘트로 지어진 교실 안은 더웠고 통풍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100명 정도가 함께 모여 감당하기 힘든 무더위 속에서 몇 시간씩 수업을 들으면서 케레는 언젠가 학교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한다.

10대 후반 독일의 직업학교 유학 기회를 잡은 케레는 낮에는 지붕과 가구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밤에는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주경야독 생활로 20대를 보낸다. 그 노력의 결실로 1995년 베를린 공과대학에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했다. 본격적인 건축사로서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베를린에서 지내던 시절에도 케레의 마음은 조국 부르키나파소의 간도마을을 떠



© Iwan Baan

나지 않았다. 케레는 학업 중이던 1998년 재단을 설립해 간도 마을 학교 설립 준비를 시작했으며, 마침내 2001년 그 결실을 맺는다.

간도 초등학교는 콘크리트가 부족한 현지 상황을 감안해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고, 더운 날씨와 조명 부족이라는 불편한 상황에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연광을 극대화하고 환기에 유리한 건물을 디자인했다. 설계도는 모래 위에 그려졌으며, 고향마을 주민들이 건축을 도왔다.

2004년 건축학석사 학위를 받고, 베니스 비엔날레 등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뒤에도 고향 아프리카를 위한 건축은 계속됐다.

부르키나파소를 포함해 베냉과 말리, 토고, 케냐, 우간다 등지에서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면서도 서아프리카의 전통미를 살린 학교와 의료기관 등을 지었다.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나무나 벽돌, 진흙 등 소재를 갖고 만든 케레의 작품은 아이



부르키나파소 국회의사당 조감도

© Kéré Architecture



런던 서펜타인 파빌리온\_Sarbalé Ke

© Iwan Baan

들을 위한 학교와 환자를 위한 병원, 성인을 위한 직업훈련원 등 아프리카 지역의 기본 사회 인프라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케레의 작업은 아프리카 국가의 학교 건물 외에도 유럽의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그리고 미국까지 확장됐다.

케레는 수상 소감을 통해 “나는 유치원에 다니지 못했지만 공동체가 곧 가족인 마을에서 자랐다. 마을 분 모두가 저를 돌봐주었고 마을 전체가 놀이터였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작은 불빛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던 방을 기억한다”라며 “우



리는 서로 가까이 모이고 방 안 목소리는 우리를 감싸며 누구나 느낄 안전한 장소를 만들곤 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건축 감각이다. 지금도 단순미와 확장 가능성을 추구하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장 적은 재료로 쉽게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현재 케레가 설계한 부르키나파소 국회의사당(와가두구, 부르키나파소)과 베냉 국회의사당(포르토-노보, 베냉 공화국)이 건축 중이다.

서정필 기자



## 지역건축안전센터위서 건안성 시스템 최종보고회, 제출도서·법규 미비로 인한 오류발생 최소화 논의

대한건축사협회는 3월 30일 '2022년도 제2회 지역건축안전센터위원회'(제2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건축규정 기반 '건안성 지원시스템 개발사업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정섭 위원장, 정형봉·안경희 총무위원, 조영수·강봉유·김남용 위원, 김경만·남상득 자문위원이 참여했다. 주요안건으로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 지원시스템'(건안성 지원시스템) 완료 보고가 진행됐다.

시스템 개발 참여업체 솔리데오시스템즈 김광호 PM은 "건축허가 업무를 신속·안전하게 처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 또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됐다"면서 "현재는 도메인 등록까지 완료한 상태로, 일단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 위원회를 비롯 협회 일정을 고려해 오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섭 위원장은 "건안성 지원시스템은 제출도서와 법규 등의 미흡으로 인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시스템을 통해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보편·타당하게 허가가 완료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고, 향후 관련 DB가 축적되면 건축 정보와 통계로서의 기능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이 옥상옥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세움터와 건축자재정보센터 연계, 기능 등의 고도화 작업도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주문했다.

한편, 건안성 지원시스템은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민원인이 작성하고 검토자가 체크리스트와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시스템이다. 4월부터 17개 시도건축사회 추천 건축사 43인을 대상으로 테스트가 이뤄지고, 이후 5월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 반 시계루, '202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특별강연자로 초청

올해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에 2014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 건축사 반 시계루가 초청된다.

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는 반 시계루가 올해 가을 열리는 건축사대회 둘째 날(2일) 특별강연 연사를 맡아 자신의 건축 철학을 우리나라 건축사들과 나눌 예정이라고 4월 4일 밝혔다.

저렴하고 건축이 용이한 종이를 활용해 이재민과 난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 공간을 고민하고 설계해 온 반 시계루는 최근에도 폴란드 헤움(Chelm)의 옛 테스코(TESCO) 마트 건물에 종이튜브를 이용해 피난공간을 만들었다.

이 공간은 우크라이나 서쪽 국경에 서 약 25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모두 300여 개별 공간을 갖췄다. 수용 인원은 620명이다. 반 시계루는 자신 이 1995년 설립한 자원건축사네트워크(VAN, Voluntary Architects Network)와 함께 3월 11일부터 작업에 돌입했다.

반 시계루는 1994년 르완다 내전 당시 처음 종이튜브를 이용한 임시 거주공간 짓기를 시작했으며 1995년 일본 한신대지진, 2010년 아이티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재해와 전쟁 난민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마련해 왔다. 반 시계루는 앞으로 헤움을 포함해 폴란드에 최소 다섯 곳 이상의 임시거처를 만들 예정이며, 프랑스와 독일에도 임시 거처를 만들 예정이다.



반 시계루

이번 202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에는 특별강연을 비롯해 이 시대 건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기조강연과 해외단체장 포럼, 개최지 제주의 멋진 건축물과 함께 하는 건축투어, 건축사실무교육 그리고 제주건축문화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돼 있다.

## 건축사공제조합 5대 신우식 이사장 취임

건축사공제조합 제5대 신우식 이사장이 취임했다. 임기는 2022년 3월 4일부터 3년 간이다.

건축사공제조합은 3월 31일 오후 3시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4대 조태종 이사장의 이임식과 신우식 이사장의 취임식을 함께 개최했다.

신우식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건축사공제조합은 이제 한 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경영철학과 아이디어로 시가 보편화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분야로 업역을 확장하고 협회 의무가입에 따른 조합 의무 가입, 관련법 개정으로 보다 많은 건축사들이 우리 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건축사 공제시장을 온전히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종 전 이사장은 이임사를 통해 "공제조합 향후 발전에 있어 앞으로의 3년이 참 중요한 시기인데 신우식 이사장님이 잘 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정인채 회장, 제35회 정기총회에서 1,000만 원 장학금 전달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3월 23일 광주광역시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역인재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인채 광주시건축사회장은 지역 인재양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1,000만 원의 사재를 출연해 이번 정기총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정된 장학생 10명은 건축사회원들의 신청과 추천을 받아 자체 장학위원회의 면밀한 선발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한편 광주시건축사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임기를 만료한 이사와 감사, 우수회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신임 감사와 이사 등 총 8인을 선출했다.